경남과학고 후배들을 위한 글 (2007) 후배들을 위한 조언: 성공의 1-2-3 (카이스트 화학과 이효철 교수)

여러분은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아인스타인과 같이 미래에 지워지지 않을 이름을 남기는 위대한 과학자가 되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고 빌 게이츠와 같이 세상을 바꾼 소프트웨어 공학자 혹은 비즈니스맨이 되려는 꿈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계최고의 신경외과의사가 되려하거나 민생을 돌보는 개혁적인 정치가가 되려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모습은 다르겠지만 뭔가 꿈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나이에 한 가지 꿈이 없거나 성공이라는 단어를 듣고도 마음이 두근거리지 않는다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성공하기 위해 밟아야 할 기본적인 단계들을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꿈 혹은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목적지를 모르고는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당시 막연하게 그냥 훌륭한 과학자가 되어야지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막연한 꿈보다는 구체적이고 벅찬 목표가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50세가 되기 전에 노벨물리학상을 받겠다는 목표가 좋은 물리학자가 되어 언젠가는 노벨상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막연하게 부자가 되어야지 하는 것보다는 40세 전에 CEO가 되어 1조 이상을 벌겠다는 목표가 훨씬 좋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 지지 않더라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꿈꾸는 것 이상은 절대로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준비한 컵의 부피만큼만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컵이 클수록 더 많은 물을 담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꿈을 반드시 적어서 기록으로 보관하고 마음이 헤이해질 때마다 꺼내서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날마다 노력해야 합니다. 즉 최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인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공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을 꾸준하게 하는 데서 생겨납니다. 노력도 없이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말로만 생각으로만 원대한 꿈을 이야기한다면 과대망상가가 될 뿐일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1시간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그런 365일이 모여서 1년이 되고 그런 알찬 1년들이 모여서 우리의 생애를 이루는 것입니다. 많은 노력 없이도 운만 좋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대박인생의 꿈에 절대로 현혹되지 마십시오. 아마도 대부분의 여러분들에게는 1차적인 단계적 목표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 단계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오늘 해야 할 일은 잘 짜여진 계획표대로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이겠죠. 공부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인터넷 게임이나 다른 비본질적인 것을 탐닉한다면 실패된 인생은 이미 보장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학과 공부 외에도 자기의 꿈과 관련된 지식들을 습득하는 것 일수도 있고 좋은 습관들을 기르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꿈을 가지돼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공부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더 좋은 대학에 자기가 원하는 학과에 진학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친구와의 우정을 키우기 보다는 친구를 경쟁자로만 생각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여받은 인생에는 여러 가지 더욱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친구보다 한 가지가 부족하다면 뭔가 다른 한 가지에서 친구보다 앞설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이치입니다. 세상을 자기가 가진 꿈보다 넓게 보는 것은 자기 꿈을 실현하는 데에 오히려 크게 도움이 되고 자기중심적 자세에서 탈피해 겸허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것은 또한 그 꿈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좋은 성적만이 절대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외적인 성공만이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될 때 그 사람의 인생은 풍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배웠던 매우 당연한 것들, 즉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예절,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과 이해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것들이 어디를 가든 꼭 필요합니다. 저의 고등학생, 대학생 시절을 돌아보면 제가 방금 언급한 것들이 성공하는데 도대체 도움이 되는지 절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 당시 선생님들께서 철없던 우리들에게 공부보다 더 강조했던 것이 이런 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세상은 결국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못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현대와 같은 초고속 정보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는 "네가 어떻게 그걸 이루겠니?"하는 악마의 속삭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속는다면 절대 꿈은 이룰 수 없습니다. 성공을 이루기도 하고 가로막기도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변명은 패배자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위의 친구들에게도 항상 진심으로 격려의 말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친구야, 너는 할 수 있어"라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는 뭔가 대단한 인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옛날에 예수님도 정작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탐탁치않게 생각하고 기대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다 같이 그저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이 나오지 않는 것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깊은 마음 속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노벨과학상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자신도 모르게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고등학교 때에 초청연사분들이 " 여러분이 노벨상을 탈 수 있다. 열심히 해서 꼭 이루어 달라"고 격려를 했을 때에도 마음속으로는 별로 동의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미 노벨상을 받기 힘든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르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학교에 있는 노벨 동산을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꿈과 가치관을 항상 점검하고 향상 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운 꿈과 가치관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평생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면 그보다 위험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지식과 부와 명예는 쌓아가지만 정작 더욱 중요한 자기 자신의 가치관에는 물을 주지 않아 자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치관은 인생의 길잡이와 같습니다. 사춘기 때의 어린아이가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 평생 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겉모습이 성숙해 갈 때에 우리의 가치관도 더욱 성숙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앞에는 정말 희망찬 미래가 있습니다. 청춘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제게 주어진 것은 이미 써 버렸습니다. 제가 다시여러분의 때로 돌아간다면 저는 구체적이고 벅찬 꿈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더욱 더 노력할 것입니다.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꿈을 향해 제 청춘을 태울것입니다. 하지만 제 꿈만을 돌아보지 않고 친구들과 꿈을 나누며 우정을 쌓으며 함께나아가고 싶습니다. 안전한 길로만 가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안전할는지 모르지만 재미없는 길입니다. 누구도 도전하지 않은 길에 도전해 보세요. 물론 그 길은 두 배의 노력을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딱 한번 사는 인생, 멋지게 살아보고 싶지 않나요?